

■ 논문 ■

## 혼종과 횡단의 공간으로서 유럽과 정체성정치 -독일 터키이주민을 중심으로

이 용 일 (부산대인문학연구소)

### 1. 유럽, 유럽인, 유럽정체성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의 『아일랜드일기(Irisches Tagebuch)』는 다음과 같은 프롤로그로 시작하고 있다. “이 아일랜드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이것을 발견할 수 없는 자는 저자에게 배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sup>1)</sup> 뵐은 조금은 우수에 찬듯하지만 따뜻하고 정감어린 그 특유의 문체로 여행자로서 그가 보고 느끼고 냄새 맡았던 아일랜드를 이 조그마한 책에 담아내었다. 하지만 온통 아일랜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책에서 저자가 정작 - 그것에 대한 장황한 언급 없이도 -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후의 서독인들이었다. 여전히 서유럽의 낙후된 지역들 중 하나였던 1950년대 중반 아일랜드의 가난하지만 명랑하고 느긋한 사람들은 패전 이후 신속한 경제적 재건으로 다시 부유해졌지만 불만족스럽고 조급한 독일인들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의 준거가 되었다. 이항대립적 타자설정을 통해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려 했던 - 혹은 ‘우리사회’를 비판하려 했던 - 뵐의 방법론은 전혀 새로운 것 없는 정체성 찾기의 오래된 정석이다.

뵐의 기행문보다 대략 230년 앞서 발간된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페르시아인의 편지(Lettres persanes)』 역시 같은 방식을 취하고

1) Heinrich Böll, *Irisches Tagebuch*(Köln, 1957), p. 5.

있다. 하지만 파리에 간 페르시아 여행객이 ‘고국’에 있는 친지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글모음의 형식을 띠고 있는 몽테스키외의 책은 훨씬 직접적이고 극단적이다. 전자가 작가 스스로 실제 아일랜드에 가서 겪고 느끼고 보았던 것을 기록한 기행문이고, 거기서는 독일적인 것이 - 실제적 효과와는 무관하게 - 우회적으로만 드러났다면, 후자는 가상의 페르시아 여행객을 설정했고, 그 안에 묘사된 페르시아의 문화와 풍속은 극히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것이다. 그러한 것은 당대의 유럽과 프랑스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 더 정확히는 그러한 비판으로 야기 될 수도 있었을 어려움을 막기 위한 - 일종의 안정장치와도 같은 것이었다. 비교적 자유로웠던 네덜란드에서 익명으로 책을 간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던 실제화자인 몽테스키외는 당시 유럽과 프랑스 사회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 가득 찬 가상의 타자로서의 페르시아인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이 책에서 몽테스키외는 ‘주인공’이 페르시아인임을 전해들은 한 파리인의 입을 통해 오늘날까지 자주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질문을 던진다. “아! 아! 그가 페르시아 사람이라고요? 대단히 놀랍군요! 어떻게 페르시아사람이 될 수 있지요?”<sup>2)</sup>

이것은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한 유럽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종종 환원되기도 한다: “어떻게 유럽인이 될 수 있지요?”<sup>3)</sup> 어쩌면 이것은 ‘무지와 편견’에 가득 찬 유럽외부의 여행객이 아니라 유럽내부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들에 정통한 사람이나 한번쯤 던져 볼 수 있는 의문일 듯하다. 과연 다양한 민족들이, 문화들이 교차하고 횡단하며 끊임없이 변모하는 혼종의 공간으로서 유럽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이민물결”속에서 이미 ‘다양한 세계문화들의 집합지’가 되어버린 유럽에서 과연 유럽성, 유럽정체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민족정체성들 사이를 넘나들며

2) 이매뉴얼 윌러스틴/김재오 옮김, 『유럽의 보편주의: 권력의 레토릭』 (창비, 2008), p.63에서 재인용. 프랑스의 저명한 중세사가 르고프가 『르고프가 들려주는 유럽의 역사』 (독일어본)에서 유럽정체성과관련하여 몽테스키외의 질문을 전유한 것에 착안하였다. 르고프의 인용이 단문이라, 전후 맥락을 위해 앞의 문장을 조금 더 인용하려 했는데, 최근 국내에 나온 번역본은 뉘앙스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 부득이 재차 중역된 윌러스틴의 인용을 차용했다.  
 몽테스키외/이수지 옮김, 『페르시아인의 편지』 (다른세상, 2002), p.98 ~ 99: “아! 아! 저분이 페르시아 사람이예요? 참 괴이한 일이기도 하죠. 어떻게 페르시아인이 될 생각을 할 수 있죠?”

3) Jacques Le Goff, *Jacques Le Goff erzählt die Geschichte Europas*,(Frankfurt am Main, 1997), p. 18.

어느 것 하나의 포기를 강요받고 있는 유럽의 이주민들, 특별히 무슬림 이주민들에게 트랜스내셔널 기획으로서 - 적어도 그렇게 표방하고 있고, 그렇게 비취지는 - ‘유럽통합운동’이 새로운 정체성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러한 질의들에 대한 답을 찾는 이 글은 다음의 몇 가지 전제들의 바탕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유럽은 지리적이라기보다 관념이자 개념이며, 특수한 국면과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고 변화한 -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 ‘역사적 구성물’이다.<sup>4)</sup> 이러한 전제는 우리를 앞서 던졌던 정체성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렇다면 과연 유럽은 무엇이며, 유럽인들은 누구인가?” 사실 완전하고 통일된 정체성은 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유럽정체성 역시 역사적 실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정의되는 ‘가상의 실재’일 뿐이다. 정체성.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 질문은 항상 실제 역사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 서술된 역사에 따라 일정 정도 대담될 수 있을 따름이다.”<sup>5)</sup>

2. 역사적으로 유럽은 비유럽이라는 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곤

---

4) 스텐트 홀, 김수진/박병영/전효관 옮김, 『현대성과 현대문화』 (현실문화연구, 2001), p.407. 홀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서양 또는 서구이다. 서양, 서구, 유럽은 대개 혼용되지만, 타자설정과 맥락에 따라서 구별되게 사용되는 개념들이다. 하지만 홀이 말하는 서양 또는 서구라는 말 대신 유럽을 넣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유럽 역시 개념이자 관념이고, 역사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서구, 유럽, 서양, 또는 서구화, 유럽화 내지 유럽중심주의와 서구중심주의 등의 개념적 유사성과 차별성을 논할 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유럽, 어떤 서구, 어떤 서양인가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들은 언제나 가변적이고 맥락적이다.

5) Herrmann Lübke, “Politische Aspekte einer europäischen Identität”, Stiftung Haus d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d., *Europäische Geschichtskultur im 21. Jh.*(Bonn, 1999), p.55 유럽, 유럽적인 것이 과연 무엇이며, 유럽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상 내지 자기인식에 이르는 거울로서 비유럽, 비유럽적인 것, 비유럽인들에 대한 상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것이 비유럽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즉 상호간의 반영을 통해 유럽과 비유럽은 그들 스스로가 누군가를 인식했다. 볼프강 슈말레, 『유럽의 재발견. 신화와 정체성으로 보는 유럽의 역사』 (을유문화사, 2006), p.346에서 재인용.

했다.<sup>6)</sup> 바꾸어 말하면, 타자와의 만남, 더 정확히는 그들과의 갈등과 전쟁이 유럽정체성 정치가 가동되고 발전하는 온상이 되었다.<sup>7)</sup> 정확한 시기는 역사가들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지만, 유럽의식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은 대략 15세기에서 16세기로 추정된다. 독일의 저명한 역사가 볼프강 슈말레(Wolfgang Schmale)는 오스만제국의 침공으로 비잔틴제국이 멸망한 해인 1453년을 유럽통합과 유럽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sup>8)</sup> 물론 16세기 신대륙 발견이후 유럽의 팽창 역시 유럽인들의 자의식 형성에 큰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었다.

3. 이시기 ‘열등한 비유럽과 우월한 유럽’이라는 유럽중심주의적 세계관은 초기 형성단계에 있었다. 때문에 18세기 초에 출간된 몽테스키외의 『페르시아인의 편지』에 등장하는 ‘비유럽인들’은 유럽인들과 상대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던 타자들이었다. 유럽적 가치와 문화를 보편적인 것으로까지 격상시키며 ‘비유럽적인 것’을 폄하하는 지식체계로서 유럽중심주의 혹은 유럽적 보편주의는 19세기 유럽중심의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비로소 완전히 확립되었다. 이러한 유럽중심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세계는 유럽과 그 나머지로 분할되었다. 한때 경이로움, 신비로움, 그리고 호기심으로부터 생겨났던 ‘비유럽’ 또는 동양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급속하게 식었고, 식민정복, ‘문명화의 사명’, 선교를 위한 학문적 침범역할을 했던 극히 일부의 분과학문들, 이를테면 민속지학과 동양학이 그 ‘나머지세계들’에 대한 - 대부분 유럽적 시각에서 전유되고 왜곡된 - 지식을 독점했다.<sup>9)</sup> 이러한 ‘무지와 편견’으로 유럽은 오랫동안 비유럽의 다양성을 간과했고, 여전히 그러하다. 이것은 오늘날 유럽사회가 무슬림 이주민공동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잘 드러난다.

---

6) 마찬가지로 것이 비유럽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즉 상호간의 반영을 통해 유럽과 비유럽은 그들 스스로가 누군가를 인식했다. Jürgen Osterhammel, *Europa um 1900: Auf der Suche nach einer Sicht von außen*(Bochum, 2008), p. 9.

7) Jürgen Kocka, “Wege zur politischen Identität Europas. Europäische Öffentlichkeit und europäische Zivilgesellschaft”, *www.fes-online-akademie.de*, pp.1-2.

8) Wolfgang Schmale, *Geschichte und Zukunft der Europäischen Identität*(Stuttgart, 2008), p. 21.

9) Sebastian Conrad/Andreas Eckert, “Globalgeschichte, Globalisierung, multiple Modernen: Zur Geschichtsschreibung der modernen Welt”, Sebastian Conrad/Andreas Eckert/Urlike Freitag ed., *Globalgeschichte. Theorien, Ansätze, Themen*(Frankfurt am Main, 2007), p. 10.

유럽중심주의는 유럽과 비유럽을 경계 짓고, 비유럽의 타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유럽정체성 정치의 주요한 작동기제였고, 여전히 그러하다.

4. 유럽정체성 정치의 또 다른 작동기제는 ‘부와 가난의 경계’였다. 그것은 또한 유럽중심주의를 지탱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었고, 여전히 되고 있다. 유럽중심주의와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확립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에서도 그 점은 잘 드러난다. 사실 가난은 유럽과 비유럽세계뿐만 아니라 유럽과 유럽국가들 내부를 갈라놓았다. 1950년대 리버풀을 출발하는 아일랜드행 증기선 안에서부터 벨이 목격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가난이었다.<sup>10)</sup> 가난은 19세기와 20세기 초 수많은 아일랜드인들을 영국으로, 혹은 미국으로 이민가게 만들었던 동인이었다. 새로운 정착지들에서 그들 대부분은 그들이 이민가방 속에 쑤셔놓고 가져갔던 - 그래서 완전히 떠날 수도 없었던 - 고국의 가난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과 차별을 경험했다. 같은 시기에 미국과 독일 등지로 떠났던 폴란드인들도 마찬가지로 운명이었다. 그들은 ‘지리적 유럽인들’이었지만, ‘유럽중심주의적 의미의 유럽인들’, 즉 ‘부유하고 선한’ 유럽인들로 인정받지 못했다. 새로운 정착지들에서 폴란드 이주민들의 문화는 유럽적 고급문화의 질을 떨어뜨리는 저급문화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잘 살고 못사는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지배와 피지배의 정치적 영역과 문화적 영역으로 환원되곤 했다. 흔히 ‘남북문제’로 불리는 이 문제는 이주물결의 가장 큰 동인이 되었고, - 여기서는 부유한 서유럽국가들과 북미 국가들만을 의미하는 - 유럽과 그 나머지를 경계 지었다. 전후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더욱 더 비유럽세계와의 소득격차를 벌일 수 있었던 서구사회들의 가장 밑바닥은 ‘나머지사회들’에서 온 이주민들로 채워졌다.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의 문화적·정치적 갈등과 새로운 정체성의 문제 이면에는 광의적 의미의 빈곤문제, 가장

10) Böll, *Irisches Tagebuch*, p. 6. 하지만 아일랜드의 가난을 향한 벨의 시선은 아일랜드의 안과 밖의 ‘일반적인’ 시선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그는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좋고 나쁨의 가치적 평가를 내리는 것을 거부했다. 심지어 그는 긍정적인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 가난 한 것이 부유한 것보다도 때때로 더 나올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여기 증기선 위에서 잉글랜드는 종말을 고했다: 이미 여기서는 이탄(泥炭)냄새가 났고, 중갑판과 바(Bar)로부터 목젓에서 우러나오는 켈트어가 들렸다. 이미 여기서는 유럽의 사회질서가 전혀 다른 형태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가난이 더 이상 전혀 치욕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광이나 치욕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가난은 - 사회적 자의식의 동인으로서 - 부유함이나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마치 주름이 그 날카로움을 잃었고, 안전편, 즉 오래된 게르만-켈트 깃꽃이핀이 그것의 오른 쪽에 다시 등장했다.”

밑바닥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5. 다음은 특수한 국면과 맥락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 자신이 묘사한 아일랜드를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벨의 프롤로그를 재차 인용해야 할 듯하다. 이 주장의 의미는 크게 시간에 따른 발전과 변화, 그리고 입장차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 질 수 있을 듯하다. 13년 뒤에 쓴 에필로그에서 벨은 이전에 책의 재판을 위해 메모해 두었던 많은 자료들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변모해 버린 - “150년을 훌쩍 뛰어 넘고, 500년을 더 따라잡은” - 아일랜드의 발전상을 언급했다.<sup>11)</sup> 그로부터 44년이 더 지난 - 기행문을 쓴 시점에서는 반세기를 훌쩍 넘긴 - 지금 ‘벨의 아일랜드’는 더 더욱 역사적 희귀종이 되었다.<sup>12)</sup> 시간적 발전과 변화와는 상관없이 독일 라인지방의 독실한 가톨릭신자였던 벨이 서 있던 자리에서 바라보았던 ‘그 아일랜드’는 어쩌면 애시 당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같은 것이 유럽정체성의 논의에도 적용된다. 사실 유럽을 전체 내지 하나의 통일체로 파악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공동의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찾으려는 - 만들어내려는 - 시도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줄곧 있어왔던 역사적 현상이었다.<sup>13)</sup> 하지만 유럽정체성 논의에 전기가 마련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전후 전개되었던 유럽통합운동이 이념으로 또는 상상으로만 존재했던 유럽에 현실적인 힘을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분명 유럽은 유럽연합 또는 유럽통합운동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이 없다면 유럽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할 수

11) *Ibid.* p. 125-126.

12) 런던과 리버풀을 경유해 아일랜드로 들어가는 배길도 이제 낭만적인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택하는 흔치않은 경로가 되지 오래다. 리버풀을 떠난 벨이 배전에서 보고 들었던, 심지어 냄새 맡았던 ‘전혀 다른 유럽’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베제(Weeze)공항이나 보베(Beauvais)공항으로 가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 유럽,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저가항공을 보급시킨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 더블린 행을 기다리며 늘어선 각양각색의 사람들 틈에서 벨이 아일랜드를 영국과, 그리고 독일과 구별 지었던 그 ‘가난’을 먼저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벨이 그토록 칭찬했던 가난에 초연한 아일랜드인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아일랜드에서 만나는 가난은 상대적인 것이고, ‘유럽적인 것’, 더 나아가 ‘세계문제’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면밀하게 결합된 유로존 국가들에게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큰 근심을 안겼던 최근의 아일랜드 금융 위기를 일컫는 말이다. 유럽헌법제정을 위한 유럽연합의 두 번째 시도를 완전히 무효화시킨 아일랜드 국민투표의 결과 역시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경제위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아일랜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1973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했던 아일랜드는 1980년대와 9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 결과 ‘아일랜드모델’은 널리 회자되는 경제적, 사회적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

13) Thomas Meyer, *Die Identität Europas*(Frankfurt am Main, 2004), p. 11.

있을 만큼, 유럽과 유럽연합을 동일시하는 현상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sup>14)</sup> 이 글에서 다루는 유럽정체성 정치 역시 전후 전개되었던 유럽통합운동의 궤적 속에 있다. 1957년 로마협약을 통해 출범한 이후 유럽경제공동체, 유럽공동체, 유럽연합으로 이름을 바꾸며 질적, 양적 변화를 거듭한 ‘유럽’은 국기, 국가, 그리고 ‘국경일(유럽의 날)’, 화폐를 가지고 있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유럽헌법제정이 시도되기도 했다. 1993년 마스트리트조약으로 오랜 숙원이던 경제통합을 이룬 유럽통합운동은 이제 정치적, 문화적 공동체, 즉 ‘하나의 국가로서 유럽’을 꿈꾸고 있다. 2004년 동구권 10개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했고, 더 많은 국가들이 가입을 열망하고 준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통일시키며 그 외연을 더욱 넓히려는 유럽연합은 그들을 하나의 통일체로 결속시키는 문화적 정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할 듯하다. 하지만 이제껏 유럽정체성 정치가 전개되고 발전했던 공간은 개별 민족국가들이었다. 유럽(전후 유럽통합운동)은 개별국가의 이해관계들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기에, 이해관계들의 차이만큼이나 꿈꾸었던 ‘유럽’, 유럽성, 유럽정체성은 제각기였다. 칼 슈미트는 일찍부터 그 점을 잘 간파하고 있었던 듯하다. “유럽과 유럽적이라는 말을 모두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분명 기만적인 것이다. 각각의 민족은 자신과 자신에 대한 생각에 따라 제각기 유럽을 상상한다.”<sup>15)</sup> 유럽정체성은 민족정체성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과 보충으로 작동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단지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혹은 민족정체성을 통해 유럽연합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sup>16)</sup>

이 글은 독일이라는 ‘민족 공간’에서 일어난 유럽정체성 정치를 다룬다. 이 공간은 유럽정체성 정치가 민족, 지역, 로컬과 때론 협력하며, 때론 경쟁하며, 실제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민족 공간이란 명칭이 무색할 만큼, 그 안에 세계가, 그리고 유럽이 큰 위치를 점유하고 들어와 있는 열린 공간이다. 인구의 5분의 1이 이민배경을 가진 자들로

14) *Ibid.* p. 7.

15) Karl Schmid, *Europa zwischen Ideologie und Verwirklichung. Psychologische Aspekte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Schaffhausen, 1990 - Erstausgabe 1966), p. 18.

16) Otto Depenheuer, “Nationale Identität und europäische Gemeinschaft”, Günter Buchstab/Rudolf Uertz ed., *Nationale Identität im vereinigten Europa*(Freiburg, 2006), p. 56

이루어진 땅에서 독일성, 유럽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터키와 독일 사이의 ‘혼종정체성’을 가진 많은 - 독일국적의 - 터키이주민들은 자신을 유럽인이라고 느끼고 있을까? 유럽 속의 다양한 타자들을 인정하는 새로운 유럽정체성은 실현 불가능한 것인가? 물론 이 모든 것의 실마리는 과연 전후 독일인들에게 유럽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의가 될 것이다.

## 2. 독일문제의 해답으로서 유럽: 헌법애국주의

다양한 영방국가들로 흩어져 살던 ‘독일어권 사람들’에게 ‘독일인이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처음 던져주었던 1806년 나폴레옹의 신성로마제국 해체 이후 - 독일문제(Deutsche Frage)의 시작 이후 - 촉발되었던 단일문화와 순수한 피에 초점이 맞추어진 ‘민족정체성 정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방향을 근원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민주적 혁명의 부재와 늦어진 민족형성으로 빚어졌던 “독일재앙(Deutsche Katastrophe)”<sup>17)</sup>, 즉 극단적·인종적 민족주의로서의 독일 민족사회주의(Nationalsozialismus)가 남긴 폐해가 이러한 ‘정체성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답은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였다. 이것은 민족주의 내지 민족과 결합된 애국주의 - 종족적 민족주의 - 를 지양하는, 독일헌법이 정의한 국민자치, 자유, 평등에 기초한 새로운 ‘정체성정치’를 위한 대체이념이었다.<sup>18)</sup> 그것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사람들로 다채롭게 섞여있는 국민에게” 연대감과 소속감으로 묶어 주는 ‘탈민족적 정체성’으로 여겨졌다. 헌법애국주의는 독일에서 “탈민족적 민주주의(Postnationale Demokratie)”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sup>19)</sup> 그 기저가 되는 것은 유럽, 더 정확히는 서구의 가치와 문화, 즉 유럽적 보편주의였다.

독일이 주도하는 거대한 유럽제국의 건설을 지향한 소위 ‘중부유럽(Mitteuropa)’ 프로젝트가 완전히 좌절된 이후, 유럽, 더 정확히 ‘

---

17)Friedrich Meinecke, *Die deutsche Katastrophe. Betrachtungen und Erinnerungen*(Wiesbaden, 1946)

18)Dolf Sternberger, *Verfassungspatriotismus*, 2. Aufl., (Frankfurt am Main, 1990), pp. 17 ~ 31.

19)Karl Diertrich Bracher/Wolfgang Jäger/Werner Link ed., *Republik im Wandel 1969-1974*(Mannheim, 1986), p. 406.

서구'는 새로운 대안이 되었다.<sup>20)</sup>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일적 유럽이 아니라, 유럽적 독일이다.”라는 토마스 만(Thomas Mann)의 주장은 전후 독일 엘리트들의 중요한 정치적 모토가 되었다.<sup>21)</sup> 물론 서방으로의 접근을 통한 독일문제의 해결은 처음에는 집권 기민연(CDU)만의 중요한 외교정책이었다. 하지만 독일 사민당(SPD) 역시 유럽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다. 이미 1925년 하이델베르크 전당대회 강령에 “유럽연방국”안이 채택되었을 만큼, 유럽, 더 정확히 자유민주주의적 유럽연방은 독일 사민당의 중요한 정책비전이었다. 하지만 즉각적인 통일을 통해 독일문제의 해결을 원했던 쿠르트 슈마허(Kurt Schumacher)가 이끌던 사민당 지도부는 처음에 유럽통합정책에 반대했다. 두 번의 선거패배 이후 사민당은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Godesberger Programm)에서 유럽통합 지지로 돌아섰다. 이후 독일에서는 유럽통합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지속되었다.<sup>22)</sup>

표1: 민족정체성과 유럽정체성(국가별 비교, 2010)

	민족 정체성	민족 정체성과 유럽정체성	유럽 정체성과 민족정체성	유럽 정체성	잘 모름
영국	70%	24%	2%	2%	0%
리투아니아	60%	32%	3%	2%	1%
체코	59%	36%	3%	1%	0%
아일랜드	58%	34%	4%	2%	2%
슬로베니아	55%	37%	4%	3%	0%
라트비아	52%	33%	8%	3%	1%
불가리아	51%	36%	5%	2%	3%
그리스	50%	41%	5%	2%	0%
루마니아	50%	18%	13%	6%	9%
에스토니아	49%	43%	4%	2%	1%
오스트리아	49%	42%	6%	2%	2%

20) Peter Katzenstein, “Germany and Mitteleuropa: An Introduction,” Peter Katzenstein ed. *Mitteleuropa. Between Europe and Germany*(Oxford/New York, 1997), p. 1; James Kurth, “Germany and the Reemergence of Mitteleuropa”, *Current History* 94, 595(1995), pp. 381~386.

21) Thomas Risse-Kappen, *A Community of Europeans?: transnational Identities and Public Spheres*(New York, 2010), p. 66에서 재인용.

22) Risse-Kappen, *A Community of Europeans?*, pp. 66 ~ 67.

스웨덴	48%	44%	5%	1%	0%
핀란드	48%	44%	6%	1%	0%
헝가리	47%	47%	5%	1%	0%
이탈리아	45%	41%	8%	2%	3%
폴란드	44%	48%	6%	1%	0%
포르투갈	43%	46%	6%	2%	2%
덴마크	43%	52%	4%	1%	0%
프랑스	42%	44%	9%	3%	2%
슬로바키아	41%	45%	10%	3%	0%
독일	39%	47%	8%	4%	1%
사이프러스	39%	44%	7%	6%	2%
말타	39%	54%	4%	2%	1%
네덜란드	36%	52%	8%	2%	2%
스페인	35%	50%	6%	5%	0%
벨기에	33%	46%	10%	6%	1%
룩셈부르크	22%	46%	12%	16%	2%

출처: Eurobarometer 1992-2010.

독일문제의 완전한 종결로 여겨지는 1990년 독일의 재통일 이후에도 우려했던 “독일적 유럽”, 즉 강력한 독일민족국가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고, “유럽적 독일” 원칙이 계속 견지되고 있다. 독일은 ‘민족적 정체성의 국제화’에 있어서 가장 모범국가로 뽑힌다. 그 대책점에는 언제나 영국이 자리한다. 독일은 국가권한의 상당부분을 유럽연합에 기꺼이 이양할 각오가 되어있는, “열렬한 유럽화의 챔피언”으로 불린다.<sup>23)</sup> 위의 표1은 그 점을 확인시켜준다. 유럽공동체에 늦게 가입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한발은 공동체 밖에 빼고 있는 - 유로화를 쓰고 있지 않는 - 영국에서의 설문결과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독일인들의 경우, 자신을 독일인으로만 혹은 유럽인으로만, 독일인이자 유럽인, 혹은 유럽인이자 독일인으로 느끼느냐는 응답에 독일정체성만을 가진 것으로 응답한자는 39%로 비교적 낮다. 하지만 독일인에 강조점을 두며 유럽인으로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7%로 가장 많다. 단지 4%의 독일인 응답자만이 스스로 유럽정체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23) Peter J. Katzenstein, “United Germany in an Integrating Europe”, Peter J. Katzenstein ed. *Tamed Power. Germany in Europe*(New York, 1997), p. 5

언급한 민족정체성과 유럽정체성의 병존과 동시성, 그리고 유럽정체성의 원천으로서 민족정체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회원국들에서 발견되어지는 특징이다. 표 2와 표 3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표2: 독일인들의 민족/유럽정체성 (1992-2010)

	민족 정체성	민족정체성과 유럽정체성	유럽정체성과 민족정체성	유럽 정체성	잘 모름
1992	41%	43%	9%	3%	3%
1993	43%	43%	8%	3%	3%
1994	29%	43%	14%	8%	5%
1995	33%	44%	11%	7%	3%
1995	38%	43%	9%	5%	4%
1996	49%	35%	6%	5%	3%
1997	47%	33%	9%	6%	5%
1998	48%	35%	7%	5%	4%
1998	46%	37%	9%	4%	3%
1999	48%	37%	8%	4%	3%
2000	45%	39%	8%	4%	3%
2001	37%	46%	9%	5%	3%
2002	40%	43%	9%	4%	3%
2003	38%	45%	10%	4%	4%
2004	38%	46%	8%	6%	2%
2004	36%	48%	9%	5%	1%
2005	35%	49%	11%	3%	3%
2010	39%	47%	8%	4%	1%

출처: Eurobarometer 1992-2010.

표 2에서 보여 지듯, 1993년도 마스트리트조약 이후 독일에서 민족정체성과 유럽정체성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하지만 독일정체성의 현저한 약화와 유럽정체성의 약진은 일시적인 현상이미 드러났다. 유럽차원에서도 비슷한 경향이였다.

표3: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의 민족정체성과 유럽정체성(1992-2010)

	민족 정체성	민족정체성과 유럽정체성	유럽정체성과 민족정체성	유럽 정체성	잘 모름
1992	38%	48%	6%	4%	4%
1993	40%	45%	7%	4%	3%
1994	33%	46%	10%	7%	4%
1995	40%	46%	6%	5%	3%
1996	46%	40%	6%	5%	3%
1997	45%	40%	6%	5%	4%
1998	43%	43%	7%	4%	2%
1999	45%	42%	6%	4%	3%
2000	41%	45%	7%	4%	2%
2001	44%	44%	6%	3%	3%
2003	40%	47%	7%	3%	3%
2004	41%	47%	7%	3%	2%
2005	41%	48%	7%	2%	2%
2010	46%	41%	7%	3%	2%

출처: Eurobarometer 1992-2010.

사실 1973년 코펜하겐 선언이후 유럽정체성에 대한 많은 정치적 논의들과 실천들이 유럽차원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러한 지난 수십년간의 노력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sup>24)</sup> 그것은 정체성 정치의 주체가 ‘브뤼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런던, 파리, 베를린 등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만들어진 유럽정체성은 민족성 또는 민족정체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이렇게 제각기인 유럽정체성은 각각의 민족적, 지역적 정체성들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작동했다.<sup>25)</sup> 옴베르토 에코는 상황과 맥락 속에서 경합하고 선택되어지는 다중적 정체성의 유럽인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정리했다. “이탈리아에서 나는 밀라노인이고, 런던에서는 이탈리아인, 뉴욕에서는 유럽인이다.”<sup>26)</sup>

24)Schmale, *Geschichte und Zukunft der Europäischen Identität*, p. 25.

25)Neil Fligstein, *Euro-Crash. The EU, European Identity and the Future of Europe*(Oxford, 2008), p. 126.

26)Erik Kroicher, “Auf dem Weg zu einer europäischen Identität”, *Veranstaltungsbeitrag im Symposium der Konrad-Adenauer-Stiftung in Prag*(2005.12), p. 3에서 인용.

하지만 이러한 비교적 명료한 ‘정체성놀이’에 자신을 맞추기 어려운 유럽인들은 수 없이 많다. 유럽인구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 이주민들이 특별히 그러하다. 그들은 분명 다양한 정체성들을 가진 개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동질집단으로 유럽에서 인식된다. 역사적으로 ‘이슬람문화’는 유럽 역사와 문화의 일부이자 ‘유럽문화’와 많은 정신적 문화적 자극을 주고받았던 파트너로 존재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 역사서술’은 그러한 상호작용과 상호연결의 역사를 다루지 않았다. 이슬람은 ‘유럽의 역사서술’에 의해 언제나 기독교적 유럽과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했던 위협적인 - 19세기 이후부터는 열등한 - 타자의 위치에 놓여졌다.<sup>27)</sup> 그러한 ‘역사’에 의해 구성된 유럽, 유럽성, 유럽정체성은 유럽의 무슬림 이주민들을 배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 유럽은 ‘우월하고 선한’ 유럽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은 독일의 특별한 길 - 어두운 과거 - 에서 벗어나 ‘우월하면서도 선한’ 유럽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스스로가 이룩해 놓은 경제성장과 복지사회는 물론, 독일역사에서 처음 구현되었다는 민주적 시민사회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 헌법애국주의와 유럽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포스트민족주의사회’를 표방했던 독일이 꿈꾸었던 -구현했던- 유럽은 유럽적 독일이었고, 그 속에는 여전히 민족적 패러다임과 유럽중심주의가 깊이 뿌리내려져 있었다.

### 3. 독일 터키이주민들의 정체성

현재 유럽에 살고 있는 무슬림 이주민들의 수는 대략 1천 5백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것은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민들의 3%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출신지역비율은 마그레브 33.6%, 터키 28.3%, 인도대륙 12%로 나타났다.<sup>28)</sup> 단일국가로 보자면, 터키는 유럽에 가장 많은 자국민들을 내보낸 이슬람국가임이 분명하다. ‘터키 프레스 유럽’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유럽에 거주하는 터키출신의 이주민들과 그 가족의 수는 모두 4백 21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중 유럽연합회원국의 국적을 취득한

27) Franco Cardini, *Europa und der Islam*(München, 2001), p. 13.

28) Naika Foroutan/Isabel Schäfer, “Hybride Identitäten - muslimische Migrantinnen und Migrantinnen in Deutschland und Europa”,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5/2009, p. 11.

자들은 1백 80만 명에 달했고, 유럽전체 터키출신 이주민들의 거의 3분 2에 해당하는 2백 70만 명이 독일에 살고 있다. 큰 편차를 가지고 프랑스(38만), 네덜란드(37만), 오스트리아(23만), 나머지 유럽회원국들(15만)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sup>29)</sup>

터키 이주민들의 ‘독일이민’ 원년은 베를린장벽이 건설되었던 1961년이다. 고도경제성장기 ‘인력대란’을 겪고 있었던 독일은 1955년 이탈리아, 1960년 그리스와 스페인에 이어 1961년 터키와도 송출협약을 맺고 터키노동자들을 독일로 불러들였다. 처음에 미미했던 독일체류 터키인들의 수는 경제침체기인 1968년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 1972년 이탈리아인들을 제치고 외국인들 중 1위가 되었다. 터키 초빙노동자들의 역사를 처음으로 정리했던 카린 훈(Karin Hunn)의 책 제목 『내년에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Nächstes Jahr kehren wir zurück...)』<sup>30)</sup>처럼, 대부분의 터키노동자들은 해외취업을 통해 단기간 많은 돈을 번 뒤 금의환향할 꿈을 안고 독일에 들어왔다. 그리고 실제 많은 터키이주노동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들의 귀환은 독일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크게 이슈가 된 것은 남게 된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고국에 있던 가족들까지 불러들여 독일사회에 정주하려고 했다. 1970년대부터 독일인들이 빠져 나간 허름한 구시가들이나 재건축요망지구들에 터키인 밀집지역들이 우후죽순같이 생겨났다.<sup>31)</sup> 이렇게 해서 각 지역사회에 형성된 터키이주민공동체들은 고국과의 다양한 접촉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터키로부터의 계속적인 연쇄이민을 부추기며 확대되었다. 2009년 현재 독일전체 인구의 3% 이상을 차지하는 터키출신 이민배경을 가진 자들은 독일에서 가장 사회통합이 어려운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류사회와의 소통이나 사회통합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전통적 문화가치를 보존하며 패쇄적으로 병존하는 - 그래서 많은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 이주민공동체를 의미하는 대칭사회(Parallelgesellschaft)<sup>32)</sup>

29)“Türken in Europa”, *Türkische Presse Europa*(2009.4.10.).

30)Karin Hunn, *Nächstes Jahr kehren wir zurück... . Die Geschichte der türkischen >>Gastarbeiter<< in der Bundesrepublik*(Göttingen, 2005).

31)Angelika Schildmeier, *Integration und Wohnen*,(Hamburg, 1975), p.33.

32)Werner Schiffauer, *Parallelgesellschaften. Wie viel Wertekonsens braucht unsere Gesellschaft? Für eine kluge Politik der Differenz*(Bielefeld, 2008), p. 10.

의 전형은 독일에서 단연 터키이주민공동체이다. 독일에는 이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터키인들의 문제만이 있을 따름이라는 주장도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민자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온 이들을 포함하여 다른 유럽국가로부터 온 이민자들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들은 모두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오직 터키인들만이 동화의 의지가 없다. 그들이 진짜 문제인 것이다.”<sup>33)</sup>

터키이주민들의 문제는 유럽 대 비유럽, 유럽 대 이슬람, 기독교적 가치 대 이슬람적 가치의 대결로 확대되었다. 9.11 테러사건과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이슬람 테러와 소요사태들은 그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다. 많은 독일인들이 이슬람근본주의, 이슬람테러, 명예살인, 강제결혼, 허잡 등을 터키 혹은 이슬람 문화현상으로 파악하고, 독일문화, 더 나아가 유럽적 문화와 대립시키고 있다.<sup>34)</sup> 그들이 더불어 살아감의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은 서구적 가치, 즉 유럽적 보편주의이다.

인간존엄성의 불가침 원칙,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남녀평등, 학문, 예술, 문화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원칙이 중요하다. 이것들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기초로서 가장 적절하게 서구적 또는 유럽적으로 불리는 것들이다.”<sup>35)</sup>

민족적 패러다임과 유럽적 보편주의는 독일에 사는 터키출신 이주민들과 그 2,3세대들에게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의 문화를 강요한다. 개인적 의지와 노력, 개성에 상관없이, 터키인들은 집단으로 독일사회에 인식된다. ‘무슬림’은 그 집단 앞에 늘 따라붙는 수식어이다. 이슬람종교가 터키이주민들에게 중요한 정신적, 문화적 역할을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주류사회가 상상하듯이 그들은 그렇게 천편일률적이지도, 극단적이지도 않다. 다만 2001년 9.11 사태이후 터키 이주민들의 이슬람신앙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 표4에서 잘 드러나 있다.

33)유정희, 「영원한 이방인: 독일의 터키 공동체」, 『독일연구』(제18호, 2009.12), p.158.

34)최현덕,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사이의 갈등에 전제되어 있는 문화개념에 관하여 - 여성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사회와 철학』 제 20집(2010.10), p. 269.

35)Schiffauer, *Parallelgesellschaften*, p. 1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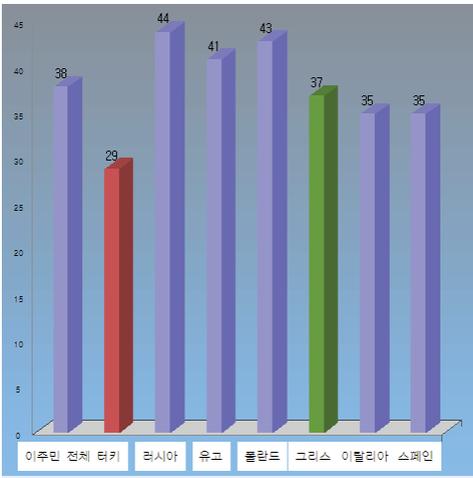
표4: 터키 이주민들의 신앙심(이슬람) 정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8	2009
아주 신앙심 깊다	7.8%	6.8%	11.2%	18.6%	21.8%	18%	18%	19.7%	19.9%
신앙심이 어느 정도 있다.	48.9%	51.8%	49.2%	54.2%	50%	53.4%	53.4%	56.6%	54.8%
신앙심이 별로 없다.	32.9%	33.1%	31.4%	21.5%	24.4%	23.8%	23.8%	20.6%	22.2%
신앙심이 전혀 없다.	7.4%	8.3%	8.2%	5.7%	3.8%	4.8%	4.8%	3.1%	3.1%

출처: ZFTI-Mehrthermenbefragung 2009.

터키 이주민들에 대한 독일사회의 편견, 고정관념, 차별은 그들의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정체성 찾기가 스스로 빚어낸 자아상과 관계하는 외부인들에 의한 타자상 사이에 일어나는 부단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많은 터키인들에게 고향을 느끼게 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다른 이주민들과 비교해서도, 독일을 고향으로 답한 터키 이주민들의 수는 현저하게 적다(그림1).

그림 1: 고향으로서 독일(출신국적별 비율)



출처: Allenbacher Archiv, IFD-Umfrage 5252.

혼종과 횡단의 공간으로서 유럽과 정체성정치

독일에 체류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곳이 자신이 속한 땅임을 느낀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터키 이주민 2,3세의 독일귀속감은 이주민 2,3세 평균은 물론이고 남유럽계보다도 낮게 나왔다.

표5: 독일귀속감(출신, 태생, 체류기간별 비율)

	전체	터키계	남유럽계
독일태생의 이주민 2,3세	62%	50%	70%
외국태생의 이주민	33%	21%	64%
체류기간 10년 미만의 이주민	19%	4%	9%
체류기간 10-19 사이의 이주민	38%	22%	10%
체류기간 20년 이상의 이주민	35%	23%	26%

출처: Allenbacher Befragung 2009.

알렌바흐연구소 설문조사에서, 독일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터키이주민들은 전체 응답자의 13%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스인들과는 동일하고, 이탈리아인들만이 더 적게 나왔을 뿐이다. 이탈리아출신 이주민들의 낮은 독일정체성은 세 가지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 설문조사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곳에는 이중정체성 내지 하이브리드 정체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다.

표6: 독일 이주민들의 정체성(출신국적별 비율, 2009년)

	독일정체성	고국정체성	유럽정체성
터키계	13%	50%	32%
러시아계	40%	23%	25%
유고슬라비아계	21%	33%	40%
폴란드계	34%	23%	40%
그리스계	13%	54%	30%
이탈리아계	9%	37%	51%
스페인계	18%	40%	41%
전체 이주민	24%	36%	34%

출처: Allenbacher Archiv, IFD-Umfrage 5252.

아래 표에서 보듯, 실제 독일에 사는 많은 이주민들은 이중정체성을

지니며 그 경계에 서 있거나 부단히 양쪽을 오간다. 어쩌면 그들은 파편화된, 여러 개의 모순된 정체성들이 짜집기되거나 뒤섞인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 정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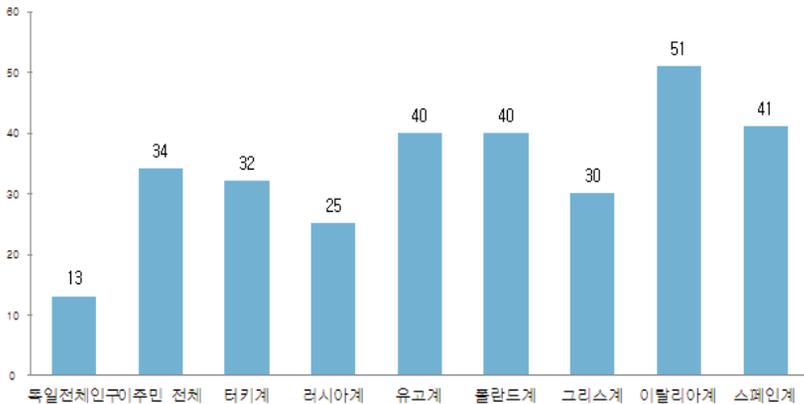
표7: 이주민들의 이중적 정체성

독일과 떠나온 고국 두 곳 모두 비슷하게 연결되어있음을 느낀다.	41%
떠나온 출신지에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느낀다.	33%
독일에서 점점 고국과의 끈이 끊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14%

출처: Allenbacher Befragung 2009.

아래 그림 2도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것이 이주민들의 유럽정체성을 조금이나마 가늠케 하는 지표로는 충분하다.

그림2: 유럽 정체성(출신국가별 비율)



출처: Allenbacher Archiv, IFD-Umfrage 5252.

독일 전체인구의 13%만이 유럽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민족정체성을 통해 유럽정체성을 가지는 유럽인들, 독일인들의 경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만약 독일정체성에 중점을 둔 유럽정체성을 물었다면 - 앞선 유럽연합의 통계조사처럼 - 분명 훨씬 많은 이들이 긍정으로 답했을 것이다. 터키 이주민들의 32%가 유럽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다는 것은, 독일정체성에 대한 강한 반발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정체성은

터키인들에게는 독일정체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되진 못했다.

그렇다면 독일도, 터키도, 유럽 그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터키출신 이주민들은 어디에서 그들의 고향을 발견했을까? 많은 이들은 그들의 감정, 충성심과 연대감을 일깨우는 끈을 대도시 외국인집단주거지역에서 발견했다. 80%의 베를린 터키인들이 베를린을 고향으로서 생각하고 베를린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sup>36)</sup> 독일 최대의 외국인밀집지역인 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가 자신의 정체성인 자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자.

나는 베를린 여성이다. 내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이 여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나의 친구들, 내 가족, 내 학업, 내 커리어, 나의 역경들과 기타 모든 것들. 나는 이 도시의 문제들, 긍정적인 면들과 부정적인 면들을 잘 안다. 그래서 나는 베를린 여성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베를린의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크로이츠베르크 출신임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같은 것을 베를린 밖에서 묻는다면, 우리는 베를린 출신이라고 답할 것이다. 우리는 베를린에서 왔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독일인들이 베를린을 이국적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은 크로이츠베르크이다.

나는 여기서 편안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내가 유일한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독일인들만이 있는 거리에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터키인들이 없고, 유고인들이 없고, 흑인들이 없는 곳. 그건 아니다. 그러면 정말이지 끔찍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동화되려고 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문화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누구도 나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sup>37)</sup>

36)Karl-Heinz Meier-Braun, *Deutschland, Einwanderungsland*(Frankfurt am Main, 2002), p. 25.

37)Schiffauer, *Parallelgesellschaften*, pp. 100-104에서 재인용.

하이브리드 정체성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크로이츠베르크는 문화들이 서로 우열 짓지 않고 만나서 상호 영향을 주고 한데 섞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적 횡단과 혼종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유럽 역시 언제나 그러했고, 여전히 그러하다. 그러한 문화들을 우열 짓고, 어떠한 것에 보편성을 부여하여 그것에 다른 것들을 통합시키려는 시도가 문제였다. 모든 문화는 다른 문화적 요소들과 결합된 혼종의 문화이다. 아주 엄밀한 의미의 이문화도, 아주 엄밀한 고유문화도 존재하지 않는다.<sup>38)</sup>

#### 4. 유럽적 선도문화와 ‘통합히스테리’

정체성정치는 자기인정의 이름으로 타자인정을 부정하는 정치의 상징어였다.<sup>39)</sup> 독일역사에서 ‘우리 만들기’의 ‘통합이념’은 타자에 대한 배제와 무시무시한 폭력을 낳았고, 그것은 후대의 부담으로 남았다. 정체성위기를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그들이 찾아내었던 것은 서구적 유럽, 더 정확히는 ‘유럽중심주의적 유럽’이었다. 독일이 주도가 되어 만들었던 유럽정체성 현장은 그러한 유럽을 보여준다.

유럽은 특히 가치공동체이다. 유럽통합과업의 목표는 이 가치를 보호하고, 의식하고, 검토하고, 지속하는 것이다... 유럽은 고대와 기독교의 역사적 뿌리 위에 건설된 이 전통적 가치를 르네상스, 휴머니즘, 계몽주의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계속 발전시켰다. 이것은 민주적 질서, 기본법과 인권의 보편적 적용과 법치국가로 이어졌다...자유, 평화, 인간위업, 평등, 사회정의는 우리의 최상가치이다. 이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유럽은 유럽연합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리 유럽인들이 그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유럽적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도덕적 정치형태와 연대정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더 강력한 유럽적 정체성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sup>40)</sup>

---

38)Wolfgang Welsch, “Transkulturalität – Die veränderte Verfassung heutiger Kulturen”, Freimut Duve u.a. ed., *Sichtweisen. Die Vielheit der Einheit*(Frankfurt am Main, 1994) p. 89.

39)Meyer, *Die Identität Europas*, p. 10.

40)Charta der europäischen Identität. Beschlossen in Lübeck am 28. Oktober 1995 vom 41. Ordentlichen Kongress der Europa-Union Deutschland.

많은 ‘유럽인들’은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 형성되었다는 - 실제로는 구성되어진 - 유럽적 문화와 가치를 유럽연합의 기저로 보고 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가입의 기준으로 유럽적 가치와 문화가 결정적인 것이 되고 있다. 그러한 유럽에는 터키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인권,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등의 유럽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은 터키 유럽가입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2000년대 초 터키 유럽가입을 놓고 벌였던 치열한 논쟁에서 66%의 유럽인들이 터키의 유럽연합에 반대했고, 그 제일 큰 이유가 문화적 차이였다.<sup>41)</sup>

유럽 곳곳에서 무슬림 소수자들은 동화되기 어려운 자들인 것이 입증되며 자신들의 하위문화 속에 산다. 독일연방공화국도 외국인문제가 아니라 단지 터키인문제를 가지고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이런 디아스포라를 자의적으로 수백만 배 더 늘여서 상생하고자하는 자발적 의지마저 시험 들게 만들려 하는가?<sup>42)</sup>

위의 주장이 보수주의자의 입에서 나왔더라면 그 사회적 과장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평생 독일 민족주의의 ‘파행적 길’을 비판적으로 연구했고, 홀로코스트의 상대화에 맞서 싸웠던 - 한때 진보적 역사가로 불렸던 - 사회사의 대가 벨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9,11 테러 직후였다는 상황을 감안해도, 그것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1945년 이전의 독일사를 특수한 길이라는 틀에서 바라보았던 일군의 역사가였다는 점, 즉 유럽중심주의적 근대화론에 입각한 역사서술에 경도되었던 역사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터키이주민 비하’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1945년 이전의 독일의 발전이 서구의 그것과 어떻게 달랐는가라는 그의 질문 이면에는 1945년 이후 정상의 길로 복귀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들어있다. 그것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서독에 대한 ‘헌법에국주의자’의 자부심이었다. 그것은 물론 철저히 유럽중심주의적 역사관이었다.

‘유럽중심주의적 유럽’은 유럽적 선도문화라는 이름으로 적녹연정의

41)Naika Foroutan/Isabel Schäfer, “Hybride Identitäten - muslimische Migrantinnen und Migrantinnen in Deutschland und Europa”,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5/2009, p. 16.

42)Hans Ulrich Wehler, “Türkenproblem”, *Die Zeit* (2002/38).

정책적 전환을 계기로 촉발되었던 독일 다문화주의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異)문화들을 포섭하며 - 혹은 배제하며 -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선도문화는 핵심문화, 주류문화, 주도문화, 지배문화, 보편문화, 공통문화, 토대문화 등으로도 불릴 수 있다. 선도문화론은 주로 독일 보수주의 정치가들에 의해 다문화주의에 대항하는 통합이념으로서 이용되었다. 그것은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민들이 받아들여야 할 기본 되는 독일적 가치와 문화였다. 하지만 실제 이 개념을 처음 만들었던 시리아 출신의 독일 사회학자 바쌌 티비(Bassam Tibi)는 선도문화론을 통해 다문화주의 자체를 정면으로 반박하려했던 것이 아니고, 공통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없는 맹목적인 다문화주의를 비판했을 뿐이었다. 티비가 주창한 선도문화론의 핵심은 공통적인 - 핵심적인 - 가치와 문화에 대한 선주민과 이주민의 합의를 통한 통합이었다. 그는 구속력 있는 - 보편적인 - 선도문화의 5가지 핵심가치로 민주주의, 세속주의(정교분리), 계몽주의, 인권, 시민사회를 제시했다.<sup>43)</sup> 그것은 독일적이라기보다 유럽적인 선도문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유럽적 선도문화가 유럽의 무슬림 이민자들의 문화를 포섭할 수 있을까? 티비가 내세웠던 핵심가치는 유럽이 비유럽적 타자로부터 스스로를 구별 지었던 유럽적 - 우월적 - 특수성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와 같은 독일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독일 선도문화(freiheitliche deutsche Leitkultur)”<sup>44)</sup>와 어떻게 다른지도 명확하지 않다. 보수주의자들이나 다문화주의자 모두가 그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핵심문화 내지 보편문화 없는 다문화주의, 즉 통합 없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주와 다문화적 현상들이 일상이 된 ‘전통적 이민 국가들’과 ‘사실상의 이민 국가들’중 사회통합을 포기한 나라는 없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까지 불렸던 독일 이민법개혁의 키워드 역시 사회통합이었다.

2004년 제정된 새로운 이민법은 새로운 이주민들과 사회통합에 문제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들에게 독일의 언어, 역사, 문화강좌를 통해 독일사회에 적응을 돕는 사회통합코스 참가를 의무화시켰다.<sup>45)</sup> 2007년 재집권한

43) Bassam Tibi, *Europa ohne Identität. Leitkultur oder Wertebeliebigkeit* (München, 1998), p. 154.

44) Friedrich Merz, “Einwanderung und Identität”, *Die Welt* (2000.10.25).

45)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Zuwanderungsgesetz*. (Pastow, 2004).

보수정권에 의해 새로이 개정된 이민법은 국적취득테스트를 신설하며 선도사회로의 통합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했다.<sup>46)</sup> 이들에 의해 최근 의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주의정책’은 아예 국가통합계획(Der nationale Integrationsplan)으로 불린다. 이 정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독일 땅에 살고 있는 한, 이주민들은 독일, 더 정확히는 유럽적 독일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여 독일사회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47)</sup> 이러한 ‘방어기제’의 이면에는 가장 밑바닥의 문제로서의 이주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불안은 통합적이데올로기의 강화로만이 아니라 이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주민대표자회의와 이슬람대표자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체는 - 한 독일 이주문제 전문가의 말처럼- 주류사회로의 일방적 통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나는 이슬람회의를 이슬람을 독일사회에 특별한 방식으로 통합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라고 생각한다... 이슬람회의에서 대화가 전면에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슬림 공동체를 선도문화로 끌어들이려는 다른 아젠다가 역할을 한다. 이슬람회의에서 선도문화라는 단어는 터부시되었지만, 어떤 분과에서는 증가일로에 있는 규범과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야기되고, 나머지 분과들은 무슬림들을 구슬려 안보에 위협받지 않고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해 다룬다.”<sup>48)</sup>

하지만 이제 독일적인 것, 유럽적인 것의 의미를 재고해야 할 만큼 - 통합이데올로기의 폐기를 고민해야 할 만큼 - 독일이, 유럽이 변모해가고 있다.

---

46) Jan Schneider, “Die Novellierung des Zuwanderungsgesetzes 2007”,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Neue Migrationspolitik*, <http://www.bpb.de/themen/OGZA5T.html>.

47)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Migration, Flüchtlinge und Integration, *Der Nationale Integrationsplan*(Baden-Baden, 2007), pp. 12~13.

48) Werner Schaffner/Mauerla Bojazijev(im Gespräch), “Es geht nicht um einen Dialog. Integrationsgipfel, Islamkonferenz und Anti-Islamismus”, Sabine Hess/Jana Binder/Johannes Moser ed., *No integration? Kulturwissenschaftliche Beiträge zur Integrationsdebatte in Europa*(Bielefeld, 2009), p. 172 ~ 173.

무역과 산업, 책과 서신연락, 공통적인 고급문화, 신속하게 장소와 지역을 옮기는 것, 모든 토지 무소유자들의 노마드적 삶, 이 모든 환경들은 민족들, 즉 유럽민족들의 약화와 소멸을 가져 올 것이다: 지속적인 교차의 결과로 모든 유럽민족들로부터 하나의 혼종, 즉 혼종의 유럽인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sup>49)</sup>

19세기 니체가 주장했던 말이다. 그를 트랜스내셔널리즘 또는 횡문화성의 선구자로 불러도 무방할 듯하다. 어쩌면 유럽은 예나 지금이나 - 늘 - 그러했는지도 모른다: 다양한 문화들이 만나고 섞이면서 새로운 혼종의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공간 말이다.

---

49) Friedrich Nietzsche, "Menschliches, Allzumenschliches I", Friedrich Nietzsche, Sämtliche Werke, a.a.O., Bd. 2. Welsch, "Transkulturalität - Die veränderte Verfassung heutiger Kulturen"에서 재인용.

## ABSTRACT

### Europe as Hybrid and Transnational Space and Identity Politics: A Case Study of Turkish Immigrants in Germany

Yong-Il Lee

In fact, Europe is a historical construction that is constantly changing depending on each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and contexts. In global times, what does it mean to be an European in a continent as hybrid and transnational space as Europe. It has always been so in the history of Europe. How can the immigrants with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find their new identity in Europe? How does the European identity politics operate?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se questions. As a case study, it examines Turkish immigrants in Germany.

hboell@naver.com

주제어: 유럽, 유럽정체성 정치, 터키 이주민들, 혼종성, 트랜스내셔널리즘  
Key Words: Europe, identity Politics in Europe, Turkish immigrants, hybridity, transnationalism